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군대는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 현장이다. 이번 〈넘버즈 357호〉에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의뢰로 국군 병사, 전역자, 군인교회 목회자, 일반교회 담임목사, 남성 성도 대상으로 실시한 군선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선교의 현 위치와 향후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24%)이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의 42%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52%)이 입대 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응답해 군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리포트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군인교회와 지역교회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전역 후에도 청년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조사

조사개요

구분	국군 병사	전역자	군인교회 목회자	일반교회 조사	
				담임목사 조사	남성 성도 조사
조사 대상	현재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병사	진중세례를 받았거나 군인교회 생활한 20~40대 군필남성	현재 군인교회 시무중인 군종목사/군선교사	일반교회 담임목사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성 성도
표본 규모	630명	500명	692명 중 총 330명 (응답률 48%)	500명	454명
표본 추출	스노우볼링 샘플링*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전수 접촉 조사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모바일 조사	모바일 조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6년 8월 28일 ~10월 6일	2026년 8월 25일 ~9월 5일	2026년 8월 28일 ~10월 6일	2026년 8월 3일 ~8월 18일	2026년 8월 3일 ~8월 18일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영락교회 (담임 김운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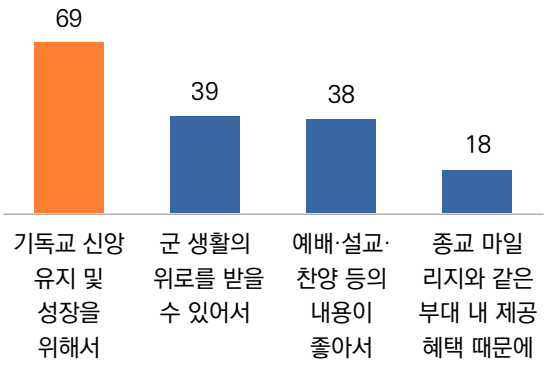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 군인교회에 시무 중인 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를 통해 설문을 출석 병사들에게 전달하고,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

01 [군인교회와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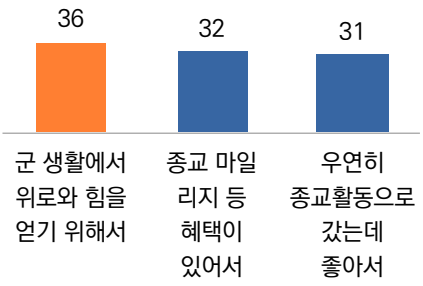
입대 전 비신자의 군인교회 출석 이유, '군생활 위로/혜택!

- 병사들이 군인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신앙 유지와 성장을 위해'(69%)가 압도적 1위였다.
- 반면 입대 전 교회 미출석자들에게는 '군생활의 위로'(36%)와 '종교 마일리지 등 혜택'(32%)이 주요 견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군인교회 출석 이유 (전체 군인교회 출석 병사, N=630, 1+2순위,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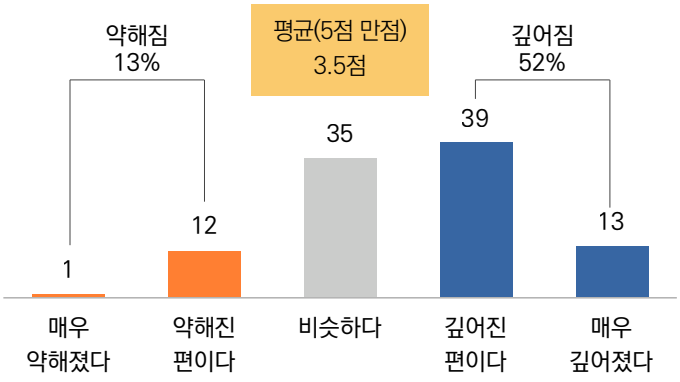
[그림] 군인교회 출석 계기 (입대 전 교회 다니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병사, N=108, 1+2순위, 상위 3개, %)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 '입대 전보다 신앙 깊어졌다'!

- 입대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병사들에게 입대 전 대비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물었더니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52%)이 '깊어졌다'고 응답했고, '비슷하다' 35%, '약해졌다'는 13%에 그쳤다.
- 군대라는 새로운 집단에 편입된 병사들이 마주한 환경이 '고난'이기에 이것이 입대 전보다 병사들의 신앙을 깊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입대 전 대비 현재 신앙 상태 (입대 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믿는 병사, N=557, %)



군인교회 출석 병사, 한국교회 20대 성도 대비 '신앙 수준 높아'!

- 군인교회 출석 병사의 신앙 수준을 한국교회 20대 성도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신앙 수준이 높은 3~4단계 비율이 '군인교회 출석 병사'(49%)가 '한국교회 20대 성도'(37%)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표] 군인교회 출석 병사와 한국교회 20대 성도의 신앙 수준 비교

신앙 단계*	군인교회 출석 병사	한국교회 20대 성도**
1단계	19%	26%
2단계	33%	37%
3단계	28%	26%
4단계	21%	11%
3~4단계 합계	**4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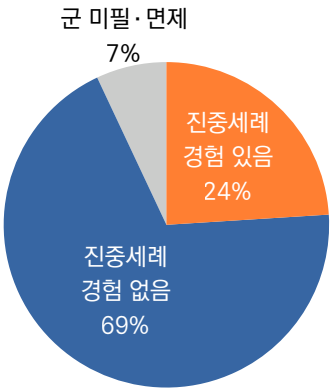
*신앙 단계는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REVEAL 조사에서 개발한 신앙 단계 모델로 현재의 신앙상태를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신앙이 개인의 삶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교회 20대 성도 조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02 [진중세례와 전역 후 신앙]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24%가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군선교 현장이 남성 청년층에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그림] 한국 남성의 진중세례 경험* (만 19세 이상 남성, N=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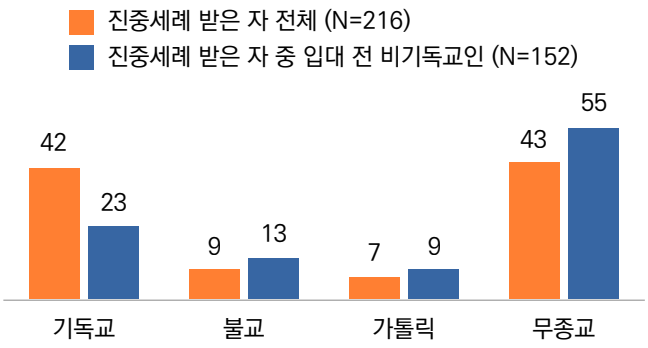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 세례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2026.02.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 493명, 온라인 조사, 2026.01.05.~01.10.)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 '현재도 기독교 신앙 유지'!

-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 특히 입대 전 비기독교인이었다가 진중세례를 받은 응답자 중에서도 23%가 현재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중세례가 청년 장병의 첫 신앙 입문과 장기적 신앙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의 현재 종교 (전역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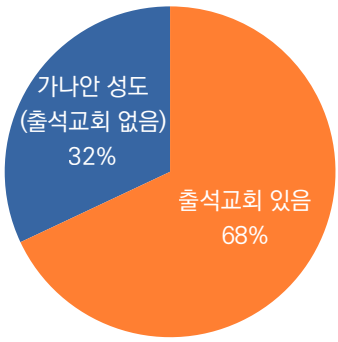


Note) 전체 기독교인 비율에는 입대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응답자도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기독교인 전역자 32%, 신앙 유지하나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 현재 기독교인인 전역자 중 '출석교회가 있다'는 응답은 68%, '출석교회가 없다'는 32%로 3명 중 1명은 전역 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출석은 중단한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군선교가 병사들의 세례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전역 후 교회 생활로 이어지는 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현재 기독교인인 전역자의 교회 출석 여부
(현재 기독교인 전역자, N=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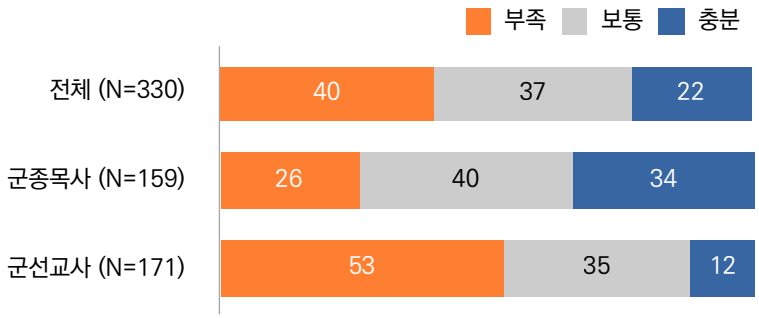


03 [군선교 현장의 위기]

군종목사교회보다 군선교사교회가 재정 상황 훨씬 열악!

- 군인교회의 전반적 재정 상황을 살펴본 결과, 10곳 중 4곳(40%)이 현재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 특히 군선교사 시무교회(53%)는 군종목사 시무교회(26%)보다 재정 부족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재정적 취약성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시무교회 전반적인 재정 상황* (군종목사·군선교사, N=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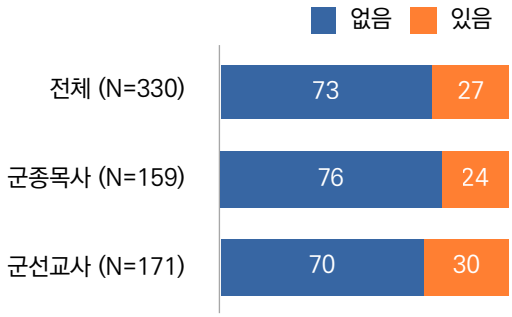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군인교회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 사역 중단 고민 경험 있다!

- 군인교회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27%)은 군선교 사역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역 중단을 고민한 주요 이유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군종목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42%)과 사역의 불연속성 문제(40%)를, 군선교사는 사역 지원 부족(42%)과 경제적 어려움(31%)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그림]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군종목사·군선교사, %)



*4점 척도

[표]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사역자, 1+2순위,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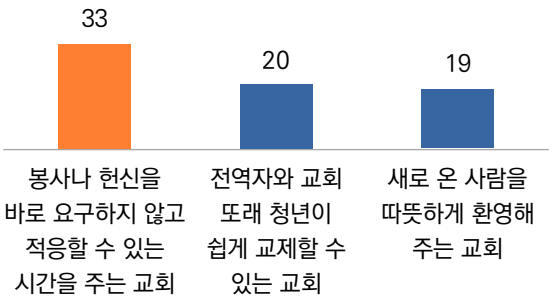
	전체	군종목사	군선교사
사역에 대한 인정과 지원 부족	37%	29%	42%
잦은 병사·교인 이동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어려움	33%	40%	29%
과도한 사역 업무와 책임	21%	42%	6%
일반 교회 목회나 다른 사역 희망	21%	32%	14%
경제적인 어려움	18%	0%	31%

04 [군선교의 과제: 지역교회와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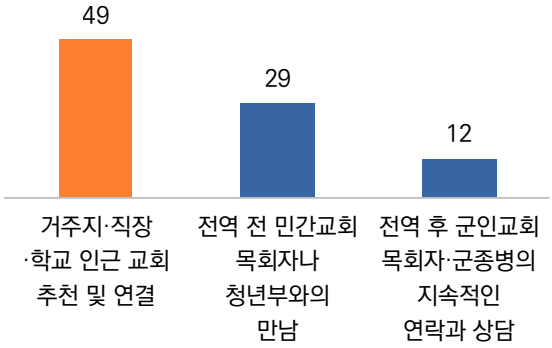
소속교회 없는 전역자 위해, '군인교회의 거주지/직장 인근교회 연결' 필요!

- 군인교회에 출석한 전역자는 교회 정착에 필요한 교회 모습으로 '헌신 요구 전 적응 시간 제공'(33%)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또래 청년과의 교제'(20%), '따뜻한 환영'(19%)이 뒤를 이었다.
- 반면 사역자들은 전역 후 신앙 유지를 위한 최우선 지원책으로 절반가량이 '거주지·직장·학교 인근 교회 추천 및 연결'(49%)을 꼽았다.
- 전역 후 신앙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교회의 수용 태도(충분한 적응 배려, 또래 간 교제 마련)와 실질적 지역교회 연결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전역자의 교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회의 모습
(군인교회 출석한 전역자, N=500.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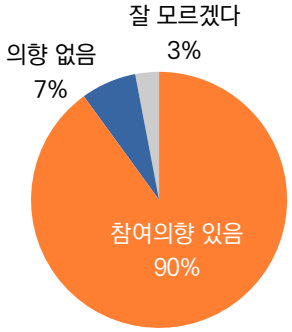
[그림] 전역 후 신앙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
(군종목사·군선교사, N=330,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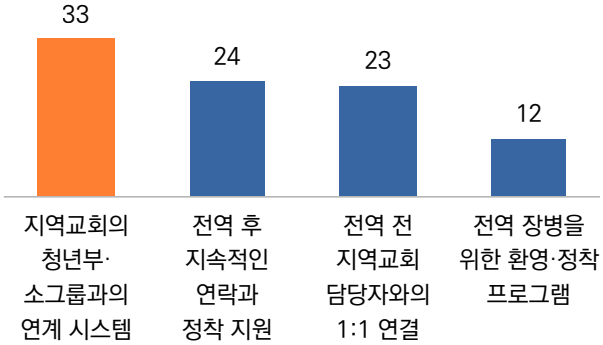
담임목사 90%,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있다'!

- 민간교회 거의 모든 담임목사인 90%가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교회와 전역자를 잇는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구체적인 지역교회 연결 방안으로는 '청년부·소그룹 연계 시스템 구축'(33%)을 가장 높게 꼽았고, '전역 후 지속적인 연락과 정착 지원'(24%), '전역 전 지역교회 담당자와의 1:1 연결'(23%) 순이었다.
- 이는 목회자들이 군선교 연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일회성 소개를 넘어 청년부 소그룹 연계 등 구체적 정착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담임목사, N=500)



[그림] 전역자의 지역교회 연결 방안 (담임목사, N=500, 상위 4개, %)



Note)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 크리스천 전역자들을 군선교 차원에서 그들의 거주지, 학교, 직장 주변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제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꼴인 24%가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 '현재도 기독교 신앙 유지'!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3. 민간교회 담임목사 90%,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있다'!

민간교회 담임목사의 90%가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교회와 전역자를 잇는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크리스천 청년들의 군대 톡톡 (주종화·이은성 저, 생명의말씀사)

관련 성경 구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목회 적용점

이번 군선교 실태 조사 결과는 군대가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깊게 다지는 매우 강력하고 특수한 선교 현장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24%)이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았고, 진중세례 전역자의 42%가 사회에 나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역 기독교인의 32%는 출석 교회를 찾지 않는 '가나안 성도'로 나타나, 군선교의 성과가 민간교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적 실천에 힘써야 한다.

첫째, 진중세례 이후의 체계적인 신앙 양육 시스템 구축이다.
군 복무 중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군인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소그룹 양육을 통해 견고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양육 프로그램이 상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의 적극적 활성화와 연계 확대로 이탈 방지이다.
민간교회 담임목사 10명 중 9명(90%)이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의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군인교회와 지역 민간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전역 전 거주지·학교 인근의 지역교회와 장병들을 1:1로 미리 연결하고, 청년부의 따뜻한 환대와 소그룹 연계를 통해 이들을 품을 때, 비로소 군선교의 열매는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부흥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